

## 패션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유형

차수정<sup>o</sup>

<sup>o</sup>국립목포대학교 패션의류학과

e-mail: carollain@mnu.ac.kr<sup>o</sup>

## Types of perception about the impact of fashion on environmental pollution

Su-Joung Cha<sup>o</sup>

<sup>o</sup>Dept. of Fashion & Cloth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 ● 요약 ●

본 연구는 20대에서 60대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환경오염과 패션산업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이를 통해 패션산업이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패션과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유형은 4개로 분석되었다. 제1유형은 의류를 생산하는 과정과 소비하는 과정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인식하지만, 패스트패션을 선호하고 트렌드를 중시하는 유형이었다. 제2유형은 패션산업이 공기와 수질을 오염시킨다고 생각하며, 가격이 비싸다면 리사이클링 의류를 구매하지는 않는 유형이었다. 제3유형은 패션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옷을 구매하면 오래 착용함으로써 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제4유형은 환경을 먼저 고려하고 헌 옷을 구매하고 옷을 바껴 입는 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유형이었다. 환경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패션분야에서도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환경오염(environmental pollution), 패션(fashion), 재활용(recycling), Q방법론(Q methodology)

### I. Introduction

전 세계 의류산업에서 해마다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세계 전체 배출량의 10%를 차지하며, 옷을 만들 때 들어가는 물의 양은 연간 1조 5,000억 리터에 이른다. 미국의 경영컨설팅 회사 맥킨지앤드컴퍼니(Mckinsey & Company)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패션산업의 밸류체인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단계는 업스트림(Upstream)으로, 의류 생산단계에서 전체 온실가스의 71%가 배출되었다. 원재료 생산, 방직 및 방직, 정련, 표백, 염색, 후가공 등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과 유통은 6%, 제품을 구입한 후, 사용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23%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1].

본 연구에서는 20대에서 60대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환경오염과 패션산업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패션산업이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 II. Study Methods

#### 1. Q population and Q sample

본 연구에서는 패션과 환경오염에 대한 진술문으로, 선행연구[2], [3]를 분석하여 총 50개의 Q 모집단을 구성하였다. 이 중에서 중복되는 진술문이나 의미가 비슷한 진술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1개의 Q 표본을 추출하였다.

#### 2. P sample

본 연구의 P표본은 20대에서 60대까지의 여성이며, 의도적 표집에 따라 최종 20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2021년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 서울과 전남지역에서 진행되었다.

#### 3. Q sorting

Q분류는 피험자가 진술문을 읽고 분류하는 과정으로, 점수에 따라 가장 동의하는 것은 오른쪽,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은 왼쪽에 배치하도록 하여 유사정규분포(quasi-normal distribution)를 이루도록 분류하였다.

#### 4. Analysis Method

자료의 분석에는 퀴넬 pc 프로그램(QUANL pc program)을 활용하였다.

### III. Results

#### 1. Type 1: Clothing production environmental pollution recognition fashion preference type

제1유형은 원단과 의류를 생산하는 과정, 의류를 세탁하는 과정, 폐의류를 태우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 폐플라스틱이나 쓰레기를 활용한 의류를 구매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패스트패션을 선호하는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또, 트렌드를 중요시하고 헌 옷을 구매하지 않으며 옷을 오래 착용하지도 않는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제1유형을 ‘의류생산 환경오염인식 패션선호형’이라고 명명하였다.

#### 2. Type 2: Air and water pollution recognition price-oriented type

제2유형은 폐의류를 태우는 것이 공기를 오염시키고 패션산업이 수질오염을 유발한다고 인식하였다. 또, 시즌리스 패션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리사이클링 의류를 구매한 경험이 있으나 가격이 비싸면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제2유형을 ‘공기와 수질오염 인식 가격중시형’이라고 명명하였다.

#### 3. Type 3: Non-recogni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 clothing wearable for a long time type

제3유형은 패션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패션산업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수작업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형이었다. 버려지는 의류가 환경을 오염시키므로 옷을 구매하면 오래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리사이클링 의류나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의류를 구매한 적이 없고 헌 옷도 구매하지 않는 유형이었다. 제3유형을 ‘환경오염 비인식 오래 착용형’이라고 명명하였다.

#### 4. Type 4: Environmental-oriented ethical consumption type

제4유형은 환경을 먼저 고려하고 헌 옷을 구매하고 다른 사람들과 옷을 바꿔 입음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유형이었다. 제4유형을 ‘환경 중시 윤리적 소비형’이라고 명명하였다.

### IV. Conclusions

패션산업의 환경오염에 대한 영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최근 들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소비자의 대부분이

패션산업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리사이클링 의류나 리폼, 공유플랫폼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20대에서 60대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패션과 환경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유형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REFERENCES

- [1] M. Kim, 10% of the world's CO<sub>2</sub> will be in the clothing industry...‘No shopping people’ is coming up," Hankyoreh.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93742.html>
- [2] N. Jang,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fashion design adapting to climate chang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5(3), 35-51, 2015. DOI: 10.18652/2015.15.3.3
- [3] M. Son, “Study on consumer cognition and clothing behavior of climate change,” Fashion Business, 21(4), 61-72, 2017. DOI: 1012940/jfb.2017.21.4.61